

사회

긴장 풀린 수험생 악덕상술 주의보

수능 이후 대학생용 어학 교재 고가 판매·알바 미끼 강매 등 기승

#사례 1. 광주 모 고교 3학년 재학생 A(18)양은 최근 광주 광천터미널 앞길에서 “설문조사에 참여하면 화장품 샘플을 주겠다”는 여성들을 따라 주차된 승합차에 탄 뒤 반강제로 계약금 1만원을 납부하고 구매 계약서를 썼다. 나머지 49만원에 대해서는 “10개월 할부로 입금하겠다”고 계약서에 적었다. A양은 값도 비싼데다 얼굴에 트러블이 생겨 언니와 상의할 끝에 계약취소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사례 2. 광주 모 대학 1학년생 B(19)군은 올해 초 면접을 보러 대학교에 다녀오던 길에 낯선 사람들에게 이끌려다가 낭패를 봤다. 그들은 “이 대학 OO 동아리에서 활동하는데, 좋은 어학교재가 있으니 사라”고 권유했다. B군은

20만원짜리 교재를 받았다는 확인서를 작성하고 집에 돌아왔으나 교재가 너무 어려운데다 가격도 비싸 반품하겠다고 밝혔으나 거부당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면서 고3 수험생과 대학 신입생들 사이에서 ‘사기 주의보’가 내려졌다. 특히 매년 겨울철이면 수능시험의 압박에서 벗어난 수험생들을 겨냥한 각종 악덕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13일 광주시소비생활센터와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각종 교재와 화장품 구입계약 해약에 관한 상담 및 피해구제 등에 대한 상담건수는 143건에 달한다. 피해 사례별로는 대학 면접시험 날 혼자서 귀

하하는 학생들에게 접근, 수십만원 상당의 교재를 강제로 떠넘기거나 허위 자격증 정보 등을 흘려 교재를 판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각종 취업 관련 교재를 판매하거나 학교 동아리 선배라고 속여 학생들에게 물품을 강매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이밖에 길에서 화장품이나 건강식품 등에 대한 충동구매를 유도하거나 텔레마케팅으로 어학잡지 구독을 강요하는 사례도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최근엔 인터넷으로 노트북 등 물품을 구입하고 돈을 입금했는데도 연락이 끊기는 행위도 급증하는 추세다. 피해자를 가운데 상담수는 수능 후부터 본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물품 거래를

수능 부정행위 광주 2명 적발

광주에서 수능 부정행위자 2명이 적발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2일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부정행위자 수를 전국 시·도 교육청을 통해 집계한 결과 광주 2명 등 총 92명이 적발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휴대전화, MP3, PMP 등 금지물품 소지가 45명으로 가장 많았고, 4교시 탐구영역 응시방법 위반 40명, 종료령 후 답안 작성 6명, 기타(시험시간 전 문제지를 펴 봄) 1명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31명, 서울 25명, 대구와 경북 각 7명, 인천과 대전, 울산 각 4명, 충남과 경남 각 3명, 광주 2명, 부산과 충북 각 1명이었다. 강원과 전북, 전남, 제주는 부정행위가 단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다.



가을비가 내린 13일 낙엽이 떨어져 가을 정취가 물씬 느껴지는 무등산 원효사~늦제 악수터 구간을 시민들이 걷고 있다. /위직림기자 jrwi@kwangju.co.kr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증거 공방

지난 7월 순천에서 발생한 ‘청산가리 막걸리 살해 사건’이 막걸리와 청산가리의 구입 경로 등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홍준호)는 13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와 딸 B(26)씨에 대한 네 번째 공판을 열고 막걸리와 청산가리의 유통 경로에 대해 심리를 벌였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단은 막걸리 배달원 K(60)씨를 상대로 A씨가 막걸리를 구입했다고

진술한 순천시 풍덕동 모 식당에 공급한 막걸리의 용량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변호인단은 “살인에 쓰였던 막걸리의 용량은 750ml지만, K씨는 이 식당에 900ml의 막걸리를 공급했다”며 살해 증거로서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두 가지 용량의 막걸리를 모두 공급하는 K씨가 유독 그 식당에만 900ml짜리를 배달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더구나 사건 당일인 7월 2일 장부에는 750ml짜리 20병의 가격인 1만6천원이 적혀있다”며 식당 장부를

변호인 “750ml 식당서 판적 없다”
검찰 “900ml만 공급 신빙성 없다”

증거로 제시했다.

또 검찰과 변호인단은 A씨가 청산가리를 구입했다고 진술한 구례 모 자전거수리점 주인의 아들인 L(44)씨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아버지가 자전거를 수리할때 청산가리를 쓰는걸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L씨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9일 오후 5시에 열린다. A씨 부녀는 지난 7월 초 A씨의 아내 최모(59)씨를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타 최씨 등 4명의 사상자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다.

진도 가족간첩단 사건 28년만에 누명 벗었다

재심서 전원 무죄 판결

군사정권 당시 수사기관에 의해 조작된 ‘진도가족간첩단 사건’의 피해자들이 28년 만에 ‘간첩 가족’이란 누명을 벗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조병현)는 13일 1980년대 ‘진도가족간첩단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박동운(64)씨 등 일가족 5명이 낸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 등은 지난 1981년 수사기관에 의한 불법 연행과 구금 상태에서 고문에 의해 허위 자백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이들의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어 무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박씨 가족들은 지난 1982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후 27년간 아무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들

가족이 과거를 잊고 새 출발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위로했다.

이에 대해 박씨는 “무죄가 선고돼 기쁘고 재심을 받게 해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군사정권 시절 국가에 의해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이 많은 만큼 국가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씨 등은 지난 1981년 8월 6·25전쟁 때 행방불명됐다가 남파된 박씨의 아버지에게 포섭돼 일가족 7명이 진도에서 24년간 고정간첩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국가안전기획부는 박씨의 어머니, 동생, 숙부, 고모 등도 잇달아 체포했으며, 이들 일가족 7명을 진도를 거점으로 한 ‘가족간첩단’으로 둔갑시켰다. 박씨는 이후 혹독한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8년을 복역하다 지난 1998년에야 가석방됐다.

“건강식품 공짜”...시골노인 상대 사기

담양경찰 일당 7명 검거

시골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 관련 물품 판매사기를 일삼아온 일당 7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담양경찰은 13일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보조식품 등을 공짜로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김모(33)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체모(27)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광주광산경찰도 공범인 남모(36)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8월께 담양군 담양읍 옛 예식장 건물 내 홍보관을 찾아온 노인들에게 “조만

간 매장을 여는데, 미리 물건값을 내면 건강식품을 주고, 돈도 다음날 돌려주겠다”고 속여 남모(여·68)씨 등 30명으로부터 1천400만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 등은 2만8천원짜리 뜰질기와 2만9천원짜리 건강보조식품을 각각 28만원, 29만원이라고 속여 판촉행사를 하는 것처럼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농촌지역을 돌며 이같은 수법으로 노인들의 돈을 가로채는 사례가 더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무등산 보호’ 홈 커밍데이

경찰이 지난달 나주에서 발생한 ‘80대 노파 피살사건’ 당시 수차례 진술을 반복함으로써 수사에 혼선을 초래한 60대 용의자를 입건하지 않기로 했다.

(사)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가 주최한 ‘무등산 운동 20주년 기념 홈 커밍데이’가 13일 광주YMCA에서 시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효과적인 무등산 보호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위직림기자 jrwi@kwangju.co.kr

‘나주 노인살해’ 허위자백 용의자 불입건

경찰이 지난달 나주에서 발생한 ‘80대 노파 피살사건’ 당시 수차례 진술을 반복함으로써 수사에 혼선을 초래한 60대 용의자를 입건하지 않기로 했다.

나주경찰은 13일 ‘나주 노파 피살사건’의 첫 번째 용의자로 검거한 A(66)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입건하지 않기로 하고,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A씨가 지난달 27일 B(여·88)씨가 숨지자 전 B씨의 집에 들어간 것은 인정했지만 뚜렷한 혐의점은 찾지 못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경찰에 검거된

뒤 범행을 자백했지만, 현장검증 과정에서 진술을 반복하다 현장에서 채취한 DNA가 일치하지 않아 검거 5일 만에 석방됐다. A씨는 이후에도 경찰에서 “가혹행위를 당할까 봐 허위 자백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횡설수설해 공범 가능성 등 의문을 키웠다.

한편 경찰은 지난 5일 이 사건의 진범 용의자 C(48)씨를 검거해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C씨는 성범죄에 대해서는 시인했지만, 살해 부분은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검찰 수사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명래 고약’ 창업주 이용재 여사 별세

종교치료계의 대명사로 불린 ‘이명래 고약’을 대량 생산했던 명래제약의 창업주 이용재(李容載·사진) 여사가 12일 오후 7시30분께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8세. 이명래고약은 1906년 프랑스 선교사인 드비즈 신부의 비방을 배운 고(故) 이명래(1890~1952) 선생이 만들어낸 것이다.

고인은 이명래 선생의 막내딸이며 고려대 총장을 지낸 고(故) 유진오

(俞鎮午·1906~1987) 박사의 미망인이다.

장성여의전을 졸업하고 소아과 의사로 활동하던 고인은 1956년 종로구 관철동에 명래제약을 설립해 이명래고약을 대량 생산했는데 이 약은 1970년대까지 영양 부족으로 종기나 다래개 등 피부질환이 많았던 국민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

빈소는 고려대 안암병원 장례식장 302호 발인은 15일 오전 9시, 연휴스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06분 해질 17시 27분 달돋이 04시 17분 달짐 15시 31분

바람불어 쌀쌀한 날 구름이 많이 끼었으며 바람이 세게 불어 쌀쌀하겠습니다.

광주	구름 많음	8/13℃
목포	구름 많음	9/12℃
여수	흐린뒤 맑음	10/13℃
완도	구름 많음	9/13℃
구례	구름 많음	6/13℃
예남	구름 많음	7/14℃
장흥	구름 많음	6/14℃
고흥	흐린뒤 맑음	9/13℃
순천	구름 많음	8/14℃
영양	구름 많음	7/12℃
진도	구름 많음	9/14℃
전주	구름 많음	7/12℃
남원	구름 많음	5/13℃
속산도	구름 많음	11/12℃

지역	풍향	파고	지외선지수	식물증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2.0~3.0m	☀	☀	☀
북서 앞바다	북서~북	2.0~4.0m	☀	☀	☀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2.0~3.0m	☀	☀	☀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2.0~4.0m	☀	☀	☀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1.5~2.5m	☀	☀	☀
북서 앞바다	북서~북	2.0~3.0m	☀	☀	☀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2.0~3.0m	☀	☀	☀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2.0~4.0m	☀	☀	☀

◇주간날씨 기상내선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5(일)	16(월)	17(화)	18(수)	19(목)	20(금)
날씨	☀	☀	☀	☀	☀	☀
최저/최고	4/10	3/10	3/9	1/10	2/12	4/13

화순 돼지축사 불 2억 1천만원 피해

12일 오후 4시30분께 화순군 동면 운봉리의 한 돼지축사에서 불이 나 2억 1천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내고 4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출하용 돼지 1천648마리와 축사 9동 가운데 7동(1천500여㎡)이 불에 탔다.

축사 인부 박모(25)씨는 “돈사 인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분만동에서 갑자기 불이 났다”고 말했다. 소방당국은 목격자와 돈사 주인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시국선언 교사 징계유보” 광주시교육위원 2명 촉구

광주시교육위원회 윤봉근, 장휘국 위원은 13일 “광주시교육감은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법원 판결 이후까지 유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내고 “시국선언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로, 위법이 아니다”며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징계를 강행하는 것은 교육감 스스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권력에 굴복하고 교육감으로서의 자치권과 책임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교과부 장관은 교사들의 헌법적 권리와 경기도교육감의 자치권에 대한 침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시 교육청은 교과부의 지침에 따라 시국선언을 강행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장 등 간부 4명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고 있다.

“간통 고소하겠다” 부부공갈단 탈미

○남편과 공모해 남편의 내내를 폭행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빼앗은 데 이어 추가로 수억원을 요구한 50대 부부 등 3명이 나란히 경찰서행.

○광주광산경찰은 13일 남편과 불륜관계인 여성을 찾아가 돈을 휘두르고 금품을 빼앗은 김모(여·54)씨와 범행을 공모한 김씨의 남편(53)을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하고, 김씨의 친구 또 다른 김모(여·51)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김씨와 그의 친구는 지난달 22일 광주시 북구 삼각동 조모(여·44)씨의 집에서 “간통사실을 알려겠다”며 돈가로 남편의 내내를 조씨를 폭행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9천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혐의.

○경찰은 “김씨 부부가 공모해 조씨로부터 9천만원을 빼앗은 데 이어 정신과 병원에 입원중인 조씨를 찾아가 추가로 2억원을 요구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들을 검거.